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모두발언(7.31.)

-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그리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시작하겠습니다.

[총괄] [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]

- 오늘 발표된 6월 전산업생산은 6년만에 최대폭으로 전월대비 2.3% 증가*하였습니다. 그리고 7월 소비와 기업심리지수도 모두 개선세**를 보이는 등 실물경제는 건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* 전산업생산(전월대비, %): ('26.1)△0.8 (2)2.1 (3)0.4 (4)△0.5 (5)△0.4 (6)2.3

** 소비자심리지수: ('26.5)106.1 (6)106.6 (7)106.8(+0.2) / 기업심리지수(실적): ('26.5)98.9 (6)97.7 (7)98.5(+0.8)

- 그러나,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비상경제본부 회의(부총리 주재)를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- 아울러, 근본적인 민생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
[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]

- 오늘은 먼저 공장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제조 생태계로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.

- 전국 공장·창고 약 73만동 중에서 4분의 1이 넘는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*를 실시하고,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* 연면적 500㎡ 이상+위험물보관소고위험사업장(500㎡ 미만 포함) 대상 화재 취약성 및 위법현황 전반 조사('26.9~'27.12)

- 그리고 금년 중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*하고, 지능형 화재감지기,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**하겠습니다.

* (現) 준불연 외장재 사용 → (改) 불연 외장재 사용 의무화

** (화재감지기 설치의무) (現) 일반감지기 → (改) 지능형 화재감지기

(스프링클러 설치의무) (現) 4층 이상 + 바닥면적 1,000㎡ 이상 → (改) 연면적 5,000㎡ 이상

□ 기업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화재 예방 장비 구매 등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재정지원(보조)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.

○ 노후화된 건물과 소방시설의 개보수 등 화재 안전투자에 대해 5년간 1조 2,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*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.

* (중소) 대출한도·지원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('27~'31년 총 2,500억원) 신설
(중견) 시중은행 대출('27~'31년, 1조원)에 이차보전(2.0%p, 기업별 최대 20억원) 지원

○ 또한,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.

○ AI·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하고,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도입 등 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.

□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현재 재량인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를 의무화하고,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환수된 과징금·벌금의 최대 30%를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.

[알뜰폰 2.0 도약방안]

□ 두 번째로는 알뜰폰 2.0 도약방안을 논의합니다.

□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혁신적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.

○ 중소·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재 50%에서 90%로 확대하고, 도매조건 개선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알뜰폰 사업 모델*을 도입하겠습니다.

* 서비스형(Partial MVNO), 독립형(Full MVNO) 알뜰폰: 요금청구·수납, 가입자 식별·인증, 트래픽 관리 등의 설비를 보유하여 요금·서비스를 독자 설계하여 제공

○ 아울러, 법률을 위반하여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겠습니다.

[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]

- 끝으로,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.
 -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가차원의 부를 축적하고,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「전략형 국부펀드」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
 - 우리도 「저축형 국부펀드」인 한국투자공사(KIC)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여 한국투자공사를 「종합형 국부펀드」로 확대·개편하겠습니다.
 - 전략형 국부펀드의 초기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의 주식, 물납주식 출자 등을 통해 2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,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가재원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.
-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①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, ②전략산업 인프라, 해외공급망기업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,
 - 투자로부터의 수익은 정부배당 등으로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.
 - 또한, 앵커투자자로서 해외 국부펀드와 공동 또는 후속투자를 유치하고 정책펀드와 협업 또는 이어달리기 투자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
- 이러한 내용을 담은 「한국투자공사법」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고,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